



정교회주보

제2472호

2024.05.1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8> 10세기 중반부터 존재한 에스피그메누 수도원(사진)은 성산 북동쪽 바닷가에 있다. 수도원의 안뜰 서쪽에는 19세기에 지어진 주님 승천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372권의 사본과 6,000권 이상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비잔틴 시대와 이후 시대의 성화를 폭넓게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부활 후 제2주일 (토마 주일)

성 에피파니오스 주교
성 게르마노스 총대주교
(조과 복음 1)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대영광송' 다음에 '토마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토마주일 찬양송 ... " " 74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5,12~20 ... 250
- 복음경 : 요한 20,19~3197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체를 요약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오 11,28)

휴머니즘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히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향해, 그리고 악에 짓눌린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모든 사람의 고통 치료제, 그것도 유일한 치료제이신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의 선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저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계시의 그 모든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함축적으로 마치 씨앗처럼 그 안에 다 담겨있습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한국 대주교

2024년 부활절 메시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인류가 역사상 들었던 것 중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선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가장 먼저 알게 된 향료 가진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마태오 28:8 참조). 향료 가진 여인 한 명 한 명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요한 20,18)라고 꼭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료 가진 여인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향료 가진 여인들에 이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사도행전 4,20)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마태오 28,19)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위협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모든 계승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전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하느님의 은총으로써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 실존적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말로써,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말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나올 때만 힘을 가집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에 따르면, '말과 삶'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위대합니다.”(PG 61:26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언어와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요한 복음사가의 모범을 따르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서 1,3 참조). 아멘



형제 여러분,
2024년은 세계 총대주교청 관할 한국 대교
구 및 일본 엑사르히아 설립 20주년을 기념하
는 해입니다. 올해는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

해서 더 많은 이들의 삶이 슬픔이 아닌 부활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성직자들과 모든 협력
자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빛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성인의 가르침



(성 막시모스 고백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열을 제어하도록 인도합니다.

정열을 제어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고뇌가 따릅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께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희망은 모든 세속적 애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성 막시모스 고백자 -

알림

■ 용미리 성당 예배

축일을 맞은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는 오늘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교회 묘지에 잠든 모든 고인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5월 26일(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부활절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 대 주간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을 위해 달걀, 에피타피온 꽃 장식, 음식 준비, 성당 청소 등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신대 학생들이 서울 성당 방문

성 대 토요일(4일) 아침 성찬예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원모 교수와 대학원생 약 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나태한 믿음

한 초보 수도자가 고백성사를 하기 위해 사부를 찾아갔다. 그가 사부에게 한 질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사부님, 왜 저는 자주 나태해질까요?”

“그건 자네에게 어디서나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세. 그래서 자네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태해질 수 있는 거지.”